

「玉所散錄」의 특성과 자료적 가치

장 정 수*

- | | |
|------------------------|------------------------|
| I. 서론 | IV. 「옥소산록」의 자료적 가치 |
| II. 「옥소산록」의 저술 목적 및 내용 | 1. 옥소의 삶에 대한 총체적 이해 |
| 1. 저술 목적 | 2. 18세기 미시사의 중요 자료 |
| 2. 체제 및 내용 | 3. 옥소와 18세기 조선의 학문적 관심 |
| III. 「옥소산록」의 특성 | V. 결론 |
| 1. 다양한 문체 | |
| 2. 정직성과 정확성 추구 | |
| 3. 자기 치유의 글쓰기 | |

국문초록

玉所는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 평생의 건문, 예술 활동, 정치적·역사적 사건 등을 꼼꼼히 기록한 「散錄」을 편찬하였다. 옥소가 「산록」을 지은 첫 번째 목적은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여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자손들에게 家法을 전하여 본받도록 하고, 후손들이 무조건적인 미화나 폄하 없이 그들의 조상이 어떤 사람인가를 제대로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그 다음 목적이었다. 「산록」은 「산록내편」과 「산록외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16개 항목의 기사가

* 강원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 / jjsoo722@hanmail.net

수록되어 있다. 「산록내편」은 서술 대상에 대한 斷想과 후손들에게 가르침이 될 만한 교훈, 자기 성찰에 관한 글 등을 모아 편집한 ‘隨想錄’의 성격이 강하며, 「산록외편」은 어린 시절의 추억, 자신의 삶에 대한 悔恨, 노년의 쓸쓸함 등을 진솔하게 기록한 ‘回顧錄’의 성격이 두드러진다. 「옥소산록」의 특성으로는 서사체·논설체·소품체 등 다양한 문체의 출현, ‘정직성’과 ‘정확성’을 지향하는 서술태도, 자기치유의 글쓰기 등을 들 수 있다. 「옥소산록」은 옥소의 삶을 총체적·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 18세기 조선 사회를 구석구석 들여다볼 수 있는 미시사의 중요 자료가 된다는 점, 옥소와 조선의 학문적 관심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 「옥소산록」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옥소 연구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주제어

玉所散錄, 隨想錄, 回顧錄, 서사체, 논설체, 李宜顯, 향촌 사족

I. 서론

본고는 「玉所散錄」¹⁾을 소개하고 그 특성과 자료적 가치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玉所 權燮(1671~1759)은 박요순에 의해 그의 시조와 가사 작품이 학계에 소개되면서 국문학계의 주목을 받았으나 문집이 공개되지 않아 오랫동안 연구에 진척을 보이지 않다가 2007년 필사본 문집 『玉所稿』 전권이 영인 출간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²⁾ 『옥소고』 출간으로 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국문시가 연구에서 벗어나 한문학, 회화, 복식, 풍수, 사상 등으로 연구 영역이 확대되었으며, 일부 자료의 번역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총 63책에 달하는 『옥소고』 전체에 대한 번역과 내용 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 주제 및 연구 방법이 다양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옥소 연구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옥소고』 번역과 각 자료의 특성 및 가치를 밝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옥소의 삶과 옥소의 사상, 18세기 조선 사회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학계에 소개된 적 없는 「옥소산록」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 가치를 구명하고자 한다.

『옥소고』에 수록된 많은 글 중에서도 「산록」은 옥소가 직접 평생의 견문과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 정치적·역사적 사건, 예술 활동 등을 꼼꼼히 기록한 것이므로 그의 생애와 사상을 이해하고 현전하는 작품을 제대로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18세기 조선 사회의 다양한 국면을 파악하는 데도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에 「옥소산록」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여 공동 연구로 번역 작업을 수행하였으며³⁾, 「옥소산록」의 내용 및 특성, 자료적 가치 등을 소개함으로써

1) 본고에서는 『옥소고』의 편명을 가리킬 때는 「산록」이라고 칭하고, 옥소가 지은 ‘산록’을 가리킬 때는 「옥소산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여타 작가의 저술과 변별되는 고유성을 부여하고자 한다.

2) 『옥소고』에 대한 소개와 자세한 서지 정보는 최호석, 「옥소 문집의 서지적 고찰」, 신경숙 외 『18세기 예술·사회사와 옥소 권섭』, 다운샘, 2007, 13~44쪽 참조.

옥소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선 「옥소산록」의 저술 목적 및 체제 등을 살펴봄으로써 「옥소산록」의 성격과 특성을 규명하고, 서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자료적 가치를 검증하고자 한다. 「옥소산록」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는 옥소와 관련된 기왕의 연구 성과를 검증하고, 여전히 문학에 치중되어 있는 연구 경향에 변화를 주어 문학 외의 다양한 분야로 연구의 외연을 넓힐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작가가 직접 자신의 삶을 세세하게 정리해 놓은 경우가 많지 않아 작가의 내면세계와 작품세계를 정확하게 연계하기 힘든 우리 문학사에서 「옥소산록」은 권섭이라는 한 문인의 삶과 문학을 실체에 가깝게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이뿐만 아니라 「옥소산록」에는 18세기 조선의 정치, 사회, 역사, 인물, 예술, 민간 풍속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일반 역사서에서 확인하기 힘든 18세기 조선 사회의 이면을 엿볼 수 있는 미시사 자료로서의 가치도 크다고 할 수 있다.

II. 「옥소산록」의 저술 목적 및 내용

1. 저술 목적

「散錄」은 말 그대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을 붓 가는 대로 적은 글을 말한다. 조선 후기 문인 任聖周(1711~1788)의 문집 『鹿門集』에서는 “經禮와 筭錄이 뒤섞여 나와서 소속됨이 없이 산만한 것과 내용이 잡다하여 별도로 편집할 수 없는 것들은 모두 모아 하나로 엮어서 散錄이라고 이름하였다.”⁴⁾라고 하였는데, 「옥소산록」 또한 일상생활 속의 에피소드를

3) 권섭, 『옥소산록』, 이창희·장정수 옮김, 다운샘, 근간.

4) 經禮筭錄之雜出而散漫無所屬及零碎而不可別作編者 鳩爲一編而名以散錄. 『녹문집』, 한국고전번역원(<https://db.itkc.or.kr>), 2021.10.15.

비롯하여 문학과 정치, 학문, 인간관계 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 등 다양한 내용의 글을 특정 형식 없이 자유롭게 기록한 것을 모아 둔 책이다.

옥소가 「산록」을 저술한 목적과 서술 태도는 「산록내편」과 「산록외편」의 서문에 명시되어 있는데, 옥소가 「산록」을 지은 목적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是非得失을 숨기지 않고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여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고자 한다. 둘째, 집안에서 보고 들은 家法을 전함으로써 자손들에게 가르침을 남기고자 한다. 셋째, 자신의 삶을 자손들에게 전하여 그들의 조상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하고자 한다.

가) 士君子의 정직한 행동과 밝은 마음을 가진 자로서 사람들에게 일컬어질 만한 사람으로는 마땅히 司馬 선생을 들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眉巖 柳公도 탄복할 만하다. 하찮은 나를 돌아보건대 독서를 많이 하지 않았고 공부도 독실하지 못해, 말과 행동이 모두 거칠고 노둔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주할 때면 더욱 아쉬움이 많았다. 그래서 일마다 하나하나 기록하여 다른 사람들의 지적과 가르침을 기다린다.

아! 子路는 사람들이 그에게 과실이 있음을 말해 주면 기뻐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없었고, 세상 사람들은 과실이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과실을 고치는 것을 부끄러워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점점 많아져서 악한 지경에 이르게 되니, 그렇게 된 뒤에 졸렬한 재주로 흠을 감추고 겉을 꾸며 사람들을 속인들 나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내가 비록 사마 선생의 정직함과 광명함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미암음을 본받아 사람들에게 시비득실을 숨기지 않고자 한다. 이 「산록」에는 때때로 집안에서 보고 들은 것들이 섞여 있어서 살펴보면 도움 되는 바가 있을 것이며, 이 「산록」을 후손에게 전하여 보여 준다면 제 조상이 진실로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⁵⁾

나) …… 眉岩 柳公에게는 日課를 기록한 글이 있는데 크고 작은 일 하나라도 빠

5) 士君子行事正直 心志光明 無不可對人言者 當矣 司馬先生 國朝眉巖柳公 亦可歎服 顧余 渺生 讀書不多 用工不篤 凡言論事爲 率皆粗疎魯莽 其與人相接之際 則尤多悔吝 當一隨事簡記 以待人人之指摘而砥礪 噫 子路喜聞過 故無過 世人不恥有過而恥改過 故過滋多而至于惡 乃設拙掩瑕而修容於外 而瞞於人 卽何益於我 正直光明 雖不及於司馬 是非得失之不諱於人 則竊欲學於眉翁 有此錄間 時以家庭見聞 以觀省而資輔焉 此錄之傳 示後來人 且可使明知其祖之爲眞是何狀. 「산록내편」 서문.

트리지 않아서 심지어는 침실 안에서의 일까지 조금도 숨기거나 꺼리지 않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분의 넓고 곧으며 사사로움 없는 태도를 좋아하여 늘 탄복해 마지않았다. 내가 지금 「산록」을 만드는 것은 자손들에게 전하여, 그들의 조상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려 함이다. 옛사람의 일을 본받는 것은 괜찮지만 업신여기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한 일이 있으면 기록하고, 의견이 있으면 기록하고, 본 것이 있으면 기록하고, 다른 사람들과 서로 다툰 일이 있으면 기록하였는데 그대로 기록하여 숨기지 않았다.

從弟 仲輝가 이 글을 보고서 말하기를 “한 집안의 일을 지나칠 정도로 숨기거나 보호하지 않았으니 ‘정직함이 그 안에 있다.’는 도리가 아닙니다.”라고 하였고, 종제 子章이 이르기를 “夢窩는 충성을 다하다가 죽었으니 그의 나머지 일은 굳이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였고, 李聖登 군은 말하기를 “일찍이 학문에 힘쓰시는 것을 뵈어 적이 없는데도 性理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 어찌 된 일입니까?”라고 하였고, 집안 아우뻘인 汝文은 말하기를 “함께 어울리신 벗들 가운데 현달한 인물들의 기록이 너무 많고, 가정 안에서의 글들은 스스로 칭찬한 기록이 너무 많은 것이 흠입니다.”라고 하였고, 서생 鄭濟卿은 “가까운 벗들에 대해 논하신 글들은 전혀 살펴볼 만한 내용이 아니며, 젊은 시절부터 함께 어울리며 있었던 좋지 않은 일들을 기록하신 글들은 지나치게 혼잡하니 모두 빼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나는 웃으며 말하기를 “이것은 내 평생의 사실을 기록한 것인데 어찌 이것저것을 다 비교하고 따져 가면서 빼거나 넣거나 하겠는가.”라고 하였다.⁶⁾

위의 서문을 살펴보면 「옥소산록」은 회고록 또는 일기의 성격을 띠는 글임을 알 수 있다. 「산록내편」의 서문에 의하면 옥소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거칠고 미련하여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자신의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기록하여 다른 사람의 지적과 가르침을 기다린다고 하였다. 즉 우리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내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일기를 쓰는 것처럼 옥소가 「산록」을 지은 것도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일기의 가장 큰

6) …… 眉岩柳公有日課之書 細大不遺 至寢席間事 亦無少隱諱 余心喜其坦直而無私 常歎服之不已 今我散錄之爲 爲傳示子孫 使不昧昧於其祖爲人 古之人事 可法不可慢矣 故有事爲書之 有意見書之 有觀記書之 有與人相干書之 直書不諱 從弟仲輝見之云 一家之言 太不隱護 非直在其中之道也 從弟子章云 夢窩事 既已忠死 餘不必論也 李君聖登云 曾不見喫緊問學之工 而能爲性理之語 何也 族弟汝文曰 朋遊之中 錄貴顯人 太多 家庭之語 記獎詡己者 太盛 有嫌也. 鄭生濟卿云 論去親朋事. 「산록외편」 서문.

미덕인 ‘솔직함’을 내세웠고 사마광의 光明正大함을 본받고, 미암의 세밀함을 모범으로 삼아 「산록」을 저술한다고 하였다. 옥소가 54세에 지은 「述懷詩序」에서 스스로 언급한 것처럼 옥소는 평생 주변 사람들의 비난에 시달리며 살아왔다. 젊은 날엔 자신의 집안 배경과 재주를 믿고 기고만장한 면이 있었고, 노후에도 독선적인 성격 때문에 주변인들과 불화를 겪었다.⁷⁾ 따라서 외로운 노년을 보내면서 悔恨에 차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고 반성하는 마음에서 「산록」을 저술하였다고 할 수 있다.

옥소가 「산록」을 저술한 두 번째 목적은 가법을 전승하기 위한 지침을 전해 주려는 것이었다. “이 산록에는 때로 집안에서 보고 들은 것들이 섞여 있어서 살펴보면 도움이 되는 바가 있을 것”이라는 서문의 기록과 “모두 40권이 넘는 내 글 가운데 「散錄內編」과 「雜儀」와 「雜識」만은 후손들에게 유익한 것이니 따로 분류해 두는 것이 좋다.”⁸⁾는 기록 등을 통해 볼 때, 후손들이 가법을 이어 나가 집안의 품위를 지켜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산록」을 저술했음을 알 수 있다. 「옥소산록」에는 관혼상제와 관련된 다양한 일화, 백부 선생의 모범적 삶과 禮에 대한 가르침, 당시 세태에 대한 비판과 자손들에게 전하는 훈계 등이 상당

7) 거사가 보는 눈이 너무 밝고 입이 너무 험해 조정의 대신 10여 명과 크게 충돌하기도 하였다. 세상에 태어나 오십여 년을 사는 동안 욕을 보고, 미움을 받고, 의심을 받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위태한 지경에 빠지고, 변을 만나고, 고생을 겪은 것이 한둘이 아니었으며 그중에는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모두 즐거운 일처럼 순응하였다.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하며 내가 어리석고 완고하며 글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나이가 많아지고 곤란을 많이 겪으면서 조금씩 모난 것을 없애고 원만하게 이해하려고 하지만 가슴에서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막지 못하여 때때로 허물이 있어 후회할 때가 많다. …… 거사는 이 세상에 태어나 옛사람의 의견과 풍모를 흠모하였고, 도회지에 살면서도 방외인의 외양과 기질, 태도 등을 좋아하였다. 망령되게도 빈한한 살림과 얇은 지식으로 글을 짓는 데 조금 재주가 있어 군자의 겸손함을 본받으면서도 처사의 오만한 행동을 하여 오랫동안 당시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미움을 받았다.居士以目太明而口太峭 觸激於十餘朝士卿相 生世五十餘年之中 見辱見忤見疑見侮 履危逢變 屢非一二 而間有人所難堪者 一皆順應之如喜樂事 人指以爲冥頑癡默而不知辭及其年紀大矣 困衡多矣 稍欲(宛+頁)方 而就圓矣 猶不禁其胸中之勃勃 時多尤悔 ……居士生下世 而慕古人之言議風采 處城市而好方外之衣巾氣態 妄以瓮牖淺智文墨小技效君子之揖讓 作處士之傲岸 久爲時人指點嘲訕. <述懷詩叙>, 「墓山 一」.

8) 吾之私稿 凡四十餘卷 唯散錄內編雜儀雜識 有益於後孫 可分類. 「산록내편3」.

수 기록되어 있으며, 옥소가 후손들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언급한 「잡의」와 「잡지」 또한 禮와 관련된 기록들을 볼 때, 「옥소산록」은 가족 질서가 흐트러지고 禮가 무너지는 세태 변화 속에서 비록 자기 집안이 영달한 큰 가문으로 영속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후손들이 올바른 인간성을 지니고 禮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작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노론의 문벌가에서 미미한 향촌의 사족으로 몰락해 간 현실 속에서 자신의 견문과 경험, 가법을 전달함으로써 가문을 지키고자 한 노력은 조선 후기 향촌사대부들이 가문을 결속하고 가문을 지키기 위해 鄉約을 결성하고 교훈시가 등을 창작하여 향유한 현상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옥소가 「산록」을 지은 또 하나의 목적은 후손들이 조상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아서 제대로 판단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는 「산록외편」의 서문에서 “내가 지금 「산록」을 만드는 것은 자손들에게 전하여, 그들의 조상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려 함이다. 옛사람의 일을 본받는 것은 편찮지만 업신여기는 것은 안 된다”고 한 데서 분명히 드러난다. 옥소는 조상에 대한 무조건적인 미화나 막연한 칭송도 타당하지 않으며, 근거 없는 폄하나 무시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자신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功過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기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옥소가 당시의 행장이나 제문 등 죽은 이에 대한 글들이 실제와 다르게 지나치게 미화되거나 칭송 일색인 것을 강하게 비판한 것⁹⁾과 관련되며, 개인의 삶 역

9) 무릇 墓道文字를 짓는 것은 후세에 미덕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만약 고인의 언행을 부풀려 찬양하는 데에만 힘을 써서 그 실상과 맞지 않는다면 격식은 갖추었으나 말이 지나친 것이 되어, 후인들도 의례적으로만 보고 실상을 기록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니, 어찌 터럭만큼이라도 도움이 되겠는가. …… 제문 등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로 찬미하는 말이 한 글자라도 적합하지 않다면 도리어 그 고인을 거짓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니 고인의 훈령이 있다면 반드시 흠양하지 않을 것이다. 凡作文字以表墓道者 爲其垂美於後世也 若增衍其言行 務爲稱揚 不中其實 則適足爲備禮說過 而後之人亦循例視之 不以爲實錄 亦何有一毫之益哉 …… 至如祭文等作亦然 贊美之語 若一字不中 則便非其人 其人有靈 必不享矣. 「산록내편1」.

시 역사와 마찬가지로 있는 그대로 기록되고 전해져야 한다는 의식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서술은 후손들이 자신의 삶을 인정하고 존송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산록외편」 서론에서 “마음속으로 그분 [미암]의 넓고 곧으며 사사로움 없는 태도를 좋아하여 늘 탄복해 마지않았다”고 기록한 것은 자신 또한 ‘넓고 곧으며 사사로움 없는’ 사람임을 후손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비록 자신 대에 이르러 신분이나 경제적으로는 퇴락하였지만, 자신은 세속적 가치에 매몰되지 않고 쇠퇴해 가는 유가의 道를 지키며 고상한 삶을 살아왔음을 자부하며, 자신에 대한 세상의 온갖 부정적 평가들이 자신의 이러한 태도와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임을 후손들이 알아주기를 바란 것이라 할 수 있다.

2. 체제 및 내용

옥소는 기록광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기록을 남겼다. 일생의 여행 경험을 기록하여 방대한 「유행록」을 남겼고, 禮와 관련된 견문과 생각을 「잡의」와 「잡지」에 기록하였으며, 집안의 산소에 관한 내용을 「墓山誌」로 정리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 어린 시절의 추억, 후회스럽거나 기억에 남는 일화, 자신과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 89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마주한 역사적 사건과 내적 고뇌, 그때그때의 斷想, 어떤 사건에 대한 의견 등을 모아 「산록」을 엮었는데, 이 「산록」이 가장 私的인 성격이 강한 글이다. 일기 성격을 띠는 이 기록을 통해 우리는 옥소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의 고민은 무엇이었는지, 그가 지향한 삶은 어떤 것이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옥소산록」의 저술 시기와 저술 과정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옥소산록」에 수록되어 있는 기사는 대부분 연도와 날짜가 기록되지 않아 언제 작성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옥소산록」은 노년에 지난날을 회고하며 쓴 글과 당시에 기록해 두었던 글들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

록외편1」에 실려 있는 李麟佐의 난과 관련된 기사는 무신년(1728, 58세) 3월 15일, 이인좌의 난 당시 청풍부의 상황 변화 및 자신의 활약상을 생생하게 기록한 것으로 이인좌의 난이 일어난 당시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산록외편1」에 실려 있는 병자년(1696, 26세)에 中學의 掌議 자격으로 辨誣 상소를 올릴 때의 일화는 “내 나이 26세인 병자년에”라는 구절로 시작하고 있어 그 당시에 작성한 것이 아니라 노년에 젊은 날을 회고하며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건의 전개 과정과 인물들의 대화 내용이 구체적인 것으로 보아 예전의 메모 등을 자료로 삼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옥소가 죽기 한 해 전인 무인년(1758, 88세) 7월 8일의 금강산 꿈을 기록한 내용과 「산록내편3」의 ‘90 가까운 나이에 손자를 땅에 묻고 마음 둘 곳 없어 김룡사와 용문사에 가서 지냈다’는 기사는 옥소가 말년에도 일기처럼 계속 일상에 대한 기록을 남겼음을 말해 준다.

이러한 과정으로 이루어진 「옥소산록」은 『옥소고』 제천본에 수록되어 있다. 현재 「散錄 內篇 一」(167면 185항목), 「散錄 內篇 三」(37면 54항목), 「散錄 外篇 一」(114면 62항목), 「散錄 外篇 二」(125면, 115항목)가 전하고 있으며, 여기에 총 416개 항목의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¹⁰⁾ 「散錄內篇」 1권과 3권이 전하고 있고, 일부 기사에 ‘疊出’이라는 표시가 있음에도 동일 기사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최소한 「散錄 內篇 二」가 더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산록」은 1938년에 간행된 석인본 『玉所集』 3책과 4책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총 271개 항목의 기사가 실려 있다. 『옥소집3』 권5 「산록내편1」에는 총 140개 항목의 기사가 수록되어 있는데, 1~112번까지의 기사¹¹⁾는 『옥소고』 「산록내편1」의 내용을 순서대로 발췌한 것이

10) 「산록 내편」과 「산록외편」의 서문을 제외한 독립된 記事의 항목수를 말한다. 기사별 요지는 번역본 『옥소산록』에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11) 『옥소고』 「산록내편1」의 45번째 기사의 뒷부분과 46번 기사, 47번 기사의 앞부분이 『옥소집』에는 누락되어 있다. 이는 『옥소집』 편찬 시 혹은 자료 복사 시 누락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문집의 편집 분량을 고려할 때 원래 46번 기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112번으로 계산하였다.

며 나머지 28개의 기사는 『옥소고』에 수록되지 않은 내용이다. 『옥소집 4』 권6 「산록내편2」에는 총 78개의 기사가 실려 있는데, 이 또한 『옥소고』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특이한 점은 『옥소고』 「산록내편3」의 기사 54편이 『옥소집』에 한 편도 실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옥소집』 「산록내편1」의 28개 기사와 「산록내편2」의 78개 기사는 원래 『옥소고』 「산록내편2」에 실려 있었던 것을 발췌하여 나누어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옥소집 4』 권6 「산록외편」은 『옥소고』 「산록외편1」과 「산록외편2」에 수록된 기사 177편 중 53편만 남기고 대거 생략한 후 1,2 구분 없이 「산록외편」으로 편집한 것이다. 『옥소집』에서 『옥소고』의 「산록내편3」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과 「산록외편」의 내용을 대거 생략한 이유는 『옥소집』 편집 과정과 편집 의도 등의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20세기에 간행된 『옥소집』에는 오늘날 옥소를 학계에 널리 알리게 된 국문시가와 한역 소설 「翻薛卿傳」, 꿈을 기록한 「夢書」 등이 모두 누락되고 전통적인 문집 체제에 어울리는 글들을 중심으로 편집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산록」의 내용 중에서도 신변잡기에 가까운 내용이나 학술적, 교훈적 가치가 적은 것은 의도적으로 빼 것으로 판단된다.

「산록내편」과 「산록외편」은 그 성격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록된 글의 내용이 다소 차이를 지니는 것으로 보아 옥소가 내외편의 목적을 달리하여 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내편과 외편의 서문만 비교해 봐도 그 차이를 엿볼 수 있는데, 「산록내편」의 서문에서는 자기 성찰과 교훈이 강조된 반면 「산록외편」에서는 ‘자손들에게 전하여 그들의 조상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려 함’이 강조되어 있다. 옥소가 후손들에게 자신의 문집 편찬과 관련하여 “모두 40권이 넘는 내 글 가운데 「산록내편」과 「잡의」와 「잡지」만은 후손들에게 유익한 것이니 따로 분류해 두는 것이 좋다. …… 「산록외편」과 「잡록」, 「文」, 「잡저」 등은 좋은 글들만 골라내고 나머지는 버리는 게 좋고, 「필찰」과 「추명지」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¹²⁾라고 당부한 글을 통해서도 산록 내외편에 대한 옥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옥소는 「산록내편」은 일상의 잡

다한 의례 등을 기록한 「잡의」, 「잡지」와 같은 성격의 자료로 생각하였으며, 「산록외편」은 「잡저」, 「잡록」 등과 더불어 신변잡기적인 기록으로 인식하여 刪削을 허락하였다.

「산록내편」에는 주로 예의와 인정이 허물어져 가는 세태에 대한 비판, 관혼상제 등의 禮의 적용과 시행에 대한 자신의 판단 및 견해, 바람직한 삶의 태도에 대한 생각, 사회적·정치적 문제에 대한 견해, 예술과 문학에 대한 비평과 학술적 논의 등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글들이 상당수 발견되며, 자손들에게 남기는 교훈과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이 진지하게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볼 때 「산록내편」은 서술 대상에 대한 단상과 후손들에게 가르침이 될 만한 교훈, 자신의 인격적 완성을 위한 성찰 등을 모아 편집한 「隨想錄」의 성격이 강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산록외편」에는 백부 權尙夏와 관련된 일화가 많이 기록되어 있으며, 친족과 친구, 당대 유명 문인들과의 교유, 지난날에 대한 추억·그리움·悔恨 등 개인적 경험과 감상이 주로 기록되어 있다. 「산록외편」은 다양한 일화를 서사적인 전개를 통해 보여주고 있어 내편에 비해 각 항목의 길이도 상대적으로 긴 편이며 이야기 문학의 재미도 선사한다. 「산록외편」에 수록된 다양한 일화들은 옥소가 어떤 인물인지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며, 뒷장에서 詳述하겠지만 우리가 알지 못했던 18세기 조선 사회의 깊숙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또한 「산록외편」에는 어린 시절의 추억, 평생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던 자신의 삶에 대한 회한, 노년의 쓸쓸함 등이 진솔하게 기록되어 있어 「回顧錄」의 성격이 두드러진다.

12) 吾之私稿 凡四十餘卷 唯散錄內編雜儀雜識 有益於後孫 可分類 …… 散錄外編雜錄文 雜著 可抄刪 筆札推命 可仍留. 「산록내편3」.

Ⅲ. 「옥소산록」의 특성

1. 다양한 문체

옥소는 기록벽이 있다고 할 정도로 기록하기를 좋아했으며 많은 기록을 남겼다. 이러한 성향은 옥소의 외삼촌인 陶谷 李宜顯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¹³⁾, 두 사람은 4살 차이로 어려서 함께 자라면서 놀이로 기록하기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다.¹⁴⁾ 옥소와 이의현은 혈연인 동시에 같은 스승에게서 수학한 동문이며, 평생 가까이 지낸 친구 같은 사이였다. 그런 까닭에 옥소와 이의현의 문학적 성향은 상당히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옥소와 마찬가지로 이의현 또한 癖에 가까울 정도로 기록과 정리에 열정을 보여, 당시 지식인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일, 해야 하는 일, 할 만한 일과 관련되는 주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발견되는 소소한 대상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였다.¹⁵⁾ 이의현의 기록벽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으로 필기류에 속하는 「雲陽漫錄」, 「陶峽叢說」, 「庚子燕行雜識」, 「荏子燕行雜識」 등이 있는데¹⁶⁾, 옥소의 「산록」과 여러 「유행록」이 이와

13) 이의현의 기록벽과 기록 정신에 대해서는 박은정, 「조선후기 지식 패러다임의 변화와 도곡 이의현-記錄癖과 기록 정신을 중심으로-」, 『온지논총』, 30, 온지학회, 2012, 참조.

14) 나는 외삼촌과 몇 년 차이로 태어나서 옷을 물려 입고 책을 이어받으며 노년에 이르렀다. 소년 시절의 일을 생각해 보면 어제 같다. …… 틈만 나면 작은 종이에 여러 가지를 기록했는데, 『戶牌錄』이라 하는 데에는 대소 관리가 올 때마다 그 호패를 베껴 썼으며, 『下物錄』이라고 하는 데에는 남녀가 사용하는 물건을 보는 대로 모두 적었으며, 『政事錄』이라고 하는 데에는 정사가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베껴 썼고, 『古談錄』이라고 하는 데에는 옛사람과 지금 사람들의 재미있는 일에 대해 들은 것을 모두 적었다. 기록한 것의 많고 적음으로써 승부를 가렸는데, 지면 벌칙으로 古詩文 10편을 외워야 했고, 외우지 못하면 또 벌로 시 10구와 문 10행을 지어야 했다. 與舅氏差齒而生 傳衣連書而至老 追理少年時事 如昨日 …… 暇時籍小紙 曰戶牌錄 大小官來 謄書戶牌 曰下物錄 見男女之具 皆籍之 曰政事錄 有政必謄之 曰古談錄 聞古今人可笑事 皆書之 以記籍多少爲勝負 負則罰誦古詩文十篇 不能則又罰作詩十句文十行. 「산록외편2」.

15) 박은정, 앞의 논문, 230쪽.

같은 성격을 띠는 작품이다.

옥소의 일기는 따로 전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기록 습관으로 보아 지속적으로 일상과 단상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별한 경험이나 사건,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 일상의 자질구레한 일들을 기록해 둔 메모들을 발전시켜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노후에 「산록」으로 편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까닭에 「옥소산록」의 글은 형식의 구애도 없으며, 주제의 한정도 없이 자신이 쓰고 싶은 모든 내용을 자유롭게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주제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붓 가는 대로 썼기 때문에 「옥소산록」에는 다양한 문체가 발견된다. 그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서사체 문체와 논설류 문체이다. 서사체 산문은 역사 사건을 기록한 것이나 그 밖에 서사를 위주로 하는 일체의 산문을 가리키는데¹⁶⁾, 「옥소산록」에는 이인좌 난의 전개 과정, 인현왕후 축출 시 유생들이 상소를 올린 사건의 전말, 兪正基의 이혼 사건의 전모, 한산도 水軍 조련 참관 시의 화재 사건 등 역사적·개인적 사건이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기록되어 있다.

내가 한산도에서 학창의를 입고 水軍을 조련하는 모습을 관람할 때, 통제사 金重元이 말하기를 “내가 제갈량을 모시고 가니 오늘 전투는 걱정이 없구려.”라고 하였다.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내가 말하기를 “제갈량이 한마디 하겠소. 전투에 승리하고 뽐내며 돌아왔지만 반드시 남은 적들이 있을 것이니, 마땅히 뒤를 경계하면서 본진으로 돌아오거나 야군과 호응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라고 하니, 통제사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오늘은 바람이 세차서 생략한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마땅히 그대의 말처럼 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군사를 주둔시키고 별도의 호령을 내려서 불화살을 쏘게 하였는데, 南村 別將의 뱃머리에서 불이 나서 군졸 6명이 사나운 불길에 데었다. 별장의 뱃머리가 바로 통제사가 탄 배의 꼬리와 서로 붙어 있어서 통제사가 황급하게 자리에서 내려와 어찌할 줄 몰랐다. 내가 말하기를 “군사들이 장군을 본다면 반드시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마땅히 자리에 올

16) 박은정, 앞의 논문, 203쪽.

17) 심경호, 『한문산문의 미학』,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8, 171쪽.

라가 부대를 지휘하여 불을 끄고 통제사의 배를 별장의 뱃머리와 멀리 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하니 통제사가 웃으면서 이 말을 따랐다. 남촌 별장이 몸을 솟구쳐 바다로 뛰어들어 해엄을 치면서 바다에 떠 있기에 작은 배로 가서 그를 구조하였다. 통제사가 ‘명을 어기고 도망친 군율’로 다스리고자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대장께서 자리에서 내려온 일은 무슨 군율을 적용하겠습니까?”라고 하니, 통제사가 웃으면서 그만두었다.¹⁸⁾

위의 인용문은 옥소가 42세 때 경상도 관찰사인 이의현의 임지를 찾았다가 경상도 일대를 유람했을 때의 경험을 기록한 것이다. 한산도에서 수군의 조련 과정을 참관한 일을 서술하였는데, 수군 조련의 절차와 통제사와의 대화, 화재 사건의 전말과 화재 현장의 생생한 묘사 등 서사물의 구성 요소를 두루 갖추어 한 편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었다.

이외에도 「옥소산록」에는 어렸을 때의 추억이라든가 백부 권상하와의 일화 등 소소한 ‘이야기’가 상당수 수록되어 있는데, 사실을 조리 있게 서술하여 서사적 긴밀성을 획득하고 있으며, 구체적 묘사와 대사 등을 활용하여 생동감을 획득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옥소산록」을 읽으면 제일 먼저 이야기를 읽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서사체 문체와 더불어 많이 발견되는 것이 논설류 문체이다. 사리를 분석하고 시비를 변별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글을 論辨文, 議論文, 論說文 등으로 부르는데, 내용에 따라 理論, 政論, 史論, 文論 등으로 나뉜다.¹⁹⁾ 「옥소산록」에는 이에 해당되는 글이 다 발견되는데, 禮와 성리에 관한 자신의 철학적 견해, 당대 국방과 인재 등용 및 사회제도 등에 관한 정치적 견해, 중국 고대사에 대한 자신의 해석, 문장과 문학 작품에

18) 余着鶴氅衣 觀水操于閑山島 統制使金重元曰 吾陪諸葛亮而去 今日之戰無虞矣 及其凱旋 余曰 諸葛亮欲一言矣 戰勝得意而歸 必有殘倭掩其後 似當有回陣接應之節矣 統制笑曰 今日風急 故略之 當如命 住軍而發別號令 火箭交發 南村別將船頭失火 六人入烈焰中爛傷 其船頭 正與上船船尾相接 統制下榻倉皇而失措 余曰 軍中見大將 事必擾亂 宜上坐而指揮撲滅 且可使上船離遠 統制笑而從之 南村別將 躍身而投于海中 游足而浮 在水面 小船來救之 統制將欲用逃命之律 余曰 大將經下榻 當用何律 統制笑而止. 「산록외편2」

19) 심경호, 앞의 책, 264~270쪽.

대한 평가, 韻字學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정보와 견해를 서술한 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왕희지가 말하기를 “石脾는 물에 들어가면 마르고 물에서 나오면 축축하며, 獨活은 바람이 없으면 흔들리다가 바람이 불면 가만히 있으니 이는 오직 성인만이 그 이치를 알 수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나는 성인이 아니니 어찌 감히 그 이치를 억지로 구명할 수 있겠는가마는 망령되어 그 이치를 생각해 보니, 석비는 그 성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더라도 금방 축축해지지 않고 오래 있다가 꺼내야만 그것이 축축해졌음을 알게 되는 것이며, 독활은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바람이 없으면 스스로 가만히 서 있지 못하다가 바람이 불면 그 힘을 빌려 비로소 그 몸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왕희지가 나의 이 말을 듣는다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다.²⁰⁾

위의 글은 광물질인 석비와 독활이라는 약초의 속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두 사물의 특이한 현상을 자기 나름의 논리로 해석하였다. 「옥소산록」에는 이 글과 같이 사물의 이치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거나 어떤 개념이나 사건에 대해 논리적 분석을 시도한 논설체 글들이 다수 발견된다.

이 외에도 「옥소산록」에는 그때그때 떠오르는 느낌이나 斷想을 간단하게 기록한 글이 많이 실려 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 사소한 일상적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 어떤 장소나 경치, 상황에 대한 느낌 등을 짧고 감각적으로 서술한 글들이 다수 발견되는데, 이런 글들은 조선 후기 소품문과 통하는 면이 있다.²¹⁾

20) 王羲之曰 石脾入水則乾 出水則濕 獨活無風則搖 有風則定 唯聖人可以窮理 余非聖人 何敢強究 試妄解之曰 石脾性堅 故入水未即濕 濕之久而出水 始知其濕矣 獨活氣弱 故無風時 體不能自立 而得風力而始定其身矣 未知羲之聞我言而謂如何. 「산록내편3」.

21) 내가 일찍이 물이 말라가는 도랑을 지나다가 물고기 여러 마리가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는 것을 보고, 말에서 내려와 앉아서 하인을 시켜 손으로 떠서 옆 개울로 옮겨주게 하였다. 처음에는 축 늘어져 살아날 기미가 없었는데, 잠시 뒤에 조금씩 입을 움직여 물을 한껏 마시고는 차례로 살아나서 어터어터 가다가 유유히 헤엄쳤다. 내가 이를 보고 즐거워하다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옛사람 중에 개미를 건네주고 복을 받은 자가 있었는데, 지금 내가 물고기를 살려 준 것은 그 공이 이보다 거의 억만

2. 정직성과 정확성 추구

「옥소산록」의 두 번째 특성으로는 전편을 관통하는, ‘정직성’과 ‘정확성’을 지향하는 서술태도를 들 수 있다. 「옥소산록」은 자기성찰을 첫 번째 저술 목적으로 내세웠는데, 자기성찰의 출발은 ‘솔직함’, ‘정직함’이라고 할 수 있다. 「옥소산록」의 서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옥소는 사마광과 미암의 정직과 광명함을 본받아 시비와 득실을 숨기지 않고자 하였다. 이에 은밀한 집안일과 현달한 벗들과의 교유, 가까운 벗들과 있었던 좋지 않았던 일들까지 숨김없이 속속들이 기록하여 집안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해당 내용을 삭제하라는 권유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옥소는 “이것은 내 평생의 사실을 기록한 것인데 어찌 이것저것을 다 비교하고 따져 가면서 빼거나 넣거나 하겠는가.”라고 하며 득실을 따지지 않고 솔직하게 다 기록하는 것이 옳다는 태도를 견지하였다.²²⁾ 즉 자신의 잘잘못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 사람이나 자신이 경험한 일들까지도 거짓 없이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한 서술 태도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사건의 전개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등장인물의 이름 및 관련 정보 등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정확성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서술 태도는 옥소가 史家의 태도로

배는 되니 반드시 음덕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돌이켜 또 생각하기를 ‘반드시 음덕이 없을 것이다. 지금처럼 보답을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은 상서롭지 못한 것이다. 처음 말에서 내렸을 때는 그 마음이 진실로 남에게 비난을 듣기 싫은 데서 나온 것이 아니었는데, 뒤에 이해관계를 따짐이 이와 같았으니, 하늘이 어찌 이런 사람을 돕겠는가. 선한 일을 할 때는 그 의도를 조심하지 않을 수 없기에, 이를 기록하여 스스로를 경계한다. 余嘗行過旱溝 見羣魚喁喁待盡 下馬而坐 使僮人手掬而縱之傍溪 初則頽然無生意 俄而稍稍動脣 飲水既飽 次第而起 圍圍而逝 洋洋而游 余視而樂之 仍自念曰 古人有渡蟻而獲福者 今吾之活此魚 幾億萬命矣 其必有陰德矣 旋又念之曰 必無陰德矣 卽此責報之心不祥 其初下馬之時 則其心固不出於惡其聲也 而末後之計較利害 乃如此 天豈佑得此人也 一念善惡 不可不慎其機 書此而自警. 「산록외편2」. 길을 가다가 우연히 죽어 가는 물고기를 살려 준 사소한 에피소드를 소재로 삼은 이 기사는, 물고기를 살려 준 장면을 섬세하고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자신의 심리 변화를 예리하게 포착하는 등 소품문의 특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2) 각주 6)의 「산록외편」의 서문 참조.

자신의 삶과 시대를 기록하고자 했으며, 자신이 산문의 전범으로 든 사마천의 『사기』의 문체를 본뜨고자 한 것²³⁾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옥소와 친밀한 관계였던 이의현은 산문 평가의 관건으로 내용이 비속하지 않고 유가 경전에 비추어 온당해야 하며, 의미 맥락이 통하더라도 법도, 즉 어휘 선택, 문장 배열, 단락 전개, 篇章 구성, 문체 구사 등 수사의 측면에서 규범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 법도는 대개 전범적인 고문의 작법에서 도출된다고 보았다.²⁴⁾ 18세기 문장가인 申維翰 또한 산문의 문예미를 강조하였는데, 그는 산문의 관건으로 글의 내용이 史料에 부합하는가, 즉 사실 기록인지를 들었으며, 단순 사실 기록이 아니라 인물, 사건 등 대상의 진면목을 얼마나 생동감 있게 묘사해 내었는가를 강조하였다.²⁵⁾ 옥소 또한 이와 유사한 산문관을 보여 주는데 진실한 문장, 간결하고 쉬운 문장, 각자의 상황과 개성을 잘 살린 문장이 좋은 문장이라고 하였다. 정직성과 정확성을 추구하는 「옥소산록」의 서술 태도는 이러한 산문 인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3) 후대에는 오직 사마천의 <貨殖傳>과 <太史公自序>만이 전형의 격식을 잃지 않았고, 나머지는 모두 광대들의 흉내 내는 말들에 지나지 않는다. 下而唯司馬遷之貨殖傳太史公自序 不失其典刑機軸 餘外皆是倡優 看乎二南列風也 淫佚唱歎. 「산록내편1」.; 나는 사마천의 글 중에 <화식전>과 <태사공자서>를 매우 좋아한다. <화식전>은 어렸을 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틈틈이 공부하여 천 번을 읽었고, <태사공자서>는 한 번도 읽지 않다가 금년부터 비로소 읽기 시작하였는데 하늘이 내 수명을 연장해 주면 반드시 천 번을 읽고 싶다. 그러나 아직도 사마천의 문장 체제를 대부분 깨닫지 못했으니 <화식전>을 천 번이나 읽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어찌하여 사마천의 수법을 여전히 모르는가. 余於司馬文 切好貨殖傳太史公自序 貨殖傳 少時爲馬上之工 讀滿千數 太史公自序 則未曾一番讀 自今年始伊吾 若天假之年 則必欲滿千數 而多未解其爲文機軸 其曰讀貨殖傳千數乎 何其尚未識司馬公手法也. 「산록내편1」.

24) 송혁기, 「18세기 초 散文理論의 전개 양상 일고: 이의현, 신유한, 조구명의 대비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31, 한국한문학회, 2003, 222쪽.

25) 송혁기, 앞의 논문, 226~227쪽.

3. 자기치유의 글쓰기

「술회시서」와 「산록」의 여러 기사를 통해 옥소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옥소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노론의 명문가에서 태어나 향촌 사족으로 몰락해 간 삶, 89세까지 장수하면서 가족과 친지를 앞세운 아픔, 세상과의 불화로 인한 심리적 고통 등이 「산록」 곳곳에 펼쳐져 있다. 이에 「옥소산록」에는 ‘可歎’, ‘可笑’ 등의 어구가 중간에 삽입되거나 이러한 어구로 끝맺는 글이 많으며, 탄식적인 어조의 글이 많이 발견된다.

자탄적 표현은 당시 세태나 사람들의 행동에 비판을 가하거나 특별한 잘못 없이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리거나 비난을 받는 자신의 상황을 토로할 때 주로 나타나는데, 이는 부정적이고 부당한 상황에 처해도 어떠한 적극적인 대응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심경과 처지를 토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세상의 禮가 쇠퇴하고, 풍습이 변화하고, 정치가 피폐해지는 데도 그를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과 권력을 갖지 못한 자신의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과 평생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 고독하게 살아온 자신의 일생에 대한 쓸쓸한 마음이 자탄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우락은 권섭에 대해 주체성과 개방성 사이, 기호학과 영남학 사이, 세속과 초월 사이에서 방황하는 ‘중간자적 존재’라고 평가하였는데,²⁶⁾ 이러한 위치에 처한 옥소가 자신의 삶을 타개해 나갈 수 있었던 방편이 여행과 글쓰기였다. 특히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토로한 「산록」의 글들은 부정당하고, 상처받고, 쇠퇴해 가는 자신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는 자기 치유의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26) 정우락, 「옥소 권섭의 세계인식과 영남관」, 『옥소 권섭의 세계 인식과 문경』,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21. 10. 22.

IV. 「옥소산록」의 자료적 가치

1. 옥소의 삶에 대한 총체적 이해

「옥소산록」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소득은 옥소의 삶을 실제에 가깝게 파악하고 그의 내면세계를 깊이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옥소산록」에는 89세까지 장수하면서 아내와 자식, 손자 등과 사별해야 했던 고통과 명문가 자제에서 향촌의 보잘것없는 사대부로 전락해 간 옥소의 파란만장한 삶, 돌봐 줄 이 없는 외롭고 쓸쓸한 노후의 모습과 회한이 곳곳에 나타나 있다.

노론 명문가에서 태어난 옥소는 왕족과의 친분으로 궁중에 드나들기도 하면서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친가·외가·처가의 탄탄한 인맥²⁷⁾ 속에서 화려한 젊은 시절을 보냈다. 옥소 스스로 “25세에 청풍에서 한양으로 들어가 유생들과 어울리다가 외람되게 과분한 추대를 받아 성균관과 四學의 논의에서 주장을 펼치고, 6道 27개 서원의 집강을 맡았으며, 당시에 李聖輝와 명성을 다투었다. 많은 선비들이 나를 알지 못하면 장차 세상에서 행세할 수 없는 듯이 여겼다. 그러자 나는 속이 텅 비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서 스스로 자만하여 눈 아래에 사람이 없는 듯이 행동하였다. 불만스런 일을 보면 내 멋대로 지껄이며 지체 높은 권세가조차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망령되이 나의 의지를 드러내며 하찮은 벼슬을 달가워하지 않았다.”²⁸⁾고 회고할 정도로 집안 배경에 힘입어得意滿滿한 젊은 시절을 보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순탄하지만은 않아, 18번이나 과거 시험을 봤으나

27) 옥소의 가계에 대해서는 조성산, 「옥소 권섭의 학풍과 현실관」, 신경숙 외, 『옥소 권섭과 18세기 조선 문화』, 도서출판 다운샘, 2009, 16~21쪽 참조.

28) 余於二十五歲 自淸風入京 遊於士林 中間猥得推許之盛 主張於館學論議 執綱二十七書院於六道 與李聖輝之當時聲名爭上下 多少士友 皆以不識權調元面 則將不得行世者然 余不自量其中之空空 持身自重 眼下無物 見有不平事 肆口言之 不知朱門之嫵媚 妄自標致 不屑意於科宦之碌碌. 「산록내편1」.

평생 정계에 진출하지 못하고 처사로 지내면서 문학 창작과 유람, 예술 활동으로 일생을 보냈다. 봉록을 구하기 위해 벼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여 과거를 포기하고 스스로 처사의 삶을 선택했지만²⁹⁾ 주변 친인척과 친구들이 모두 관직에 올라 서로 다른 환경에 처하게 되면서 소외감을 느끼기도 했고, 중년 이후에는 자신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 주었던 부형이 세상을 떠나면서 벼슬아치들의 푸대접을 견뎌야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40대 후반 이후에는 경제적 어려움까지 닥쳐 여러 번 거처를 옮기고 생계를 걱정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옥소의 가정사도 순탄하지 않아 25세에 첫 부인인 이씨 부인과 사별 후 26세에 종실 帶原君의 딸을 부실로 맞았으며, 27세에 조씨 부인과 재혼하였다. 신임 사화(1723, 53세) 때는 노론 4대신이 사사되고, 백부 권상하의 관작이 추탈되었으며, 계부 권상유와 외삼촌 이의현이 삭직 또는 문외출송되는 사건을 겪었다. 또한 경종 때 장남인 권진성이 옥새 위조 사건으로 賜死되는³⁰⁾ 고통을 겪기도 하였다.

「옥소산록」을 통해 옥소의 파란만장한 생애뿐만 아니라 그의 내면도 깊이 있게 관찰할 수 있다. 옥소는 「술회시서」 등을 통해 자신의 성품에 대해 직접 서술하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옥소의 이미지는 스스로 관직을 포기하고 자연에서 노닐며 신선의 삶을 추구한 인물, 道와 禮를 중시하고 아첨을 싫어하여 세상과 불화를 겪었던 인물, 문학과 예술을 즐긴 풍류객 등이다. 「옥소산록」에는 옥소의 이러한 성품을 확인할 수 있는 일화들이 많이 발견된다. 옥소는 강호에서 풍류를 즐기면서 사는 자신의 삶이 벼슬아치들의 삶에 대적할 만하다는 자부심을 토로했으며, 자손들에게 山訟과 재물로 인한 爭訟을 벌이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道와 禮에 엄격하여 평생 유람을 다니면서도 官長이 자신과 친한 사이가 아니면 방문하지 않았으며, 왕족인 副室 李氏로 하여금 왕실과 거리를 두도록 하고 대궐에서 하사하는 선물도 법도에 맞지 않는다며 사양

29) 生年廢科宦 只是不閑程式之文也 只守干祿恥之志也 初非高蹈遐舉之人. 「산록내편3」.

30)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경종 2년 임인(1722) 11월 29일(경술) 「어보를 위조한 죄인 권진성을 추국하다」.

하기도 하였다.

「옥소산록」을 통해 우리는 앞서 말한 것과 다른, 지금껏 포착하지 못한 옥소의 새로운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금껏 알려진 탈속적이며 고고하고 오만한 이미지와 달리 「옥소산록」에는 옥소의 ‘인간 존중’, ‘생명 중시’ 의식을 보여주는 일화들이 다수 발견되며, 옥소 스스로 이러한 생각을 직접 토로하기도 하였다. 옥소의 인간 존중 의식을 잘 보여 주는 것이 다음의 예시이다.

소인이라고 해서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니 소인도 대든다. 천한 자라고 해서 소홀히 대하지 말아야 하니 천한 자도 기롱할 줄을 안다. 그러니 무릇 말을 하거나 일을 행할 때는 터럭만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금수나 곤충 같은 미물도 모두 지각이 있는데, 어찌 사람이 바로 그 옆에서 전혀 거리낌 없이 행동할 수 있겠는가. 그 입은 비록 다물고 있지만 그 눈빛은 빛나고, 그 조잘대고 웅얼거리는 소리를 사람들은 조잘대고 웅얼거리는 소리로 듣지만 그들은 서로 생각을 전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또 어느 한 측면에 뛰어난 것이 있으니 ……³¹⁾

금수나 곤충도 지각이 있고 저마다의 능력이 있어 함부로 대할 수 없거늘 지각이 있는 인간을 신분이 천하다고 하여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이 글을 통해 한 생명체로서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고, 주체적 인식을 가진 존재로 존중해야 함을 강조한 옥소의 사상을 파악할 수 있다.

옥소는 신분제 사회에서 자신의 신분을 누리고 살면서도 신분이나 배경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산록」의 곳곳에서 주장하였다. 스님, 선비, 빈궁한 사대부, 경화사족 등 신분에 따라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들에게 대한 비판, 庶母, 庶叔, 서조카 등 집안에서 천대하는 친척들에 대한 존중, 집안 하인의 장례를

31) 勿以小人而侮之 小人亦有對頭 勿以賤隸而易之 賤隸亦知識議 則凡出言行事 不可一毫放過矣 禽獸昆蟲之微 亦皆有知覺 人豈可全無忌憚於其旁側乎 其口雖噤 其目則炯然 其啁啾嚙吟 人雖聽之以啁啾嚙吟 渠則是自相傳說之者矣 且其有一處之通知……. 「산록내편1」

성대하게 치러 주고 상주 노릇까지 한 일, 당시의 관례를 깨고 서자와 서순에게도 관례를 치러 준 일, 地官의 서원 참배를 허락해야 한다고 주장한 일, 음식 접대에 지위와 정분에 따라 차이를 두면 안 된다는 주장 등은 옥소의 이러한 인식을 잘 보여주는 일화들이다. 신분이 인간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옥소는 당시의 인재 선발이 문벌에서만 이루어짐을 비판하고 중인이나 평민층에도 각 분야의 뛰어난 인재가 있으므로 이들을 적극 등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옥소는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권위나 이해관계로 사람을 대하는 것을 비판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마음을 다해야만 진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나보다윗사람이 나를 예에 맞게 대하지 않는데도 나와 가깝다고 해서 좋아한다면 결국에는 수모를 당하게 된다. 반드시 나를 대함에 있어 존중이 드러나야만 부끄러운 일이 없을 것”³²⁾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어렸을 때 이웃의 재상이 과일을 던져서 주자 항의한 일화나 신분이나 권세를 이용해 위세를 부리는 사람에게는 굽히지 않고 무례하게 굴어 비난과 미움을 사기도 한 일 등이 이러한 생각을 실친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옥소산록」에는 옥소의 성품을 알아볼 수 있는 소소한 일화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다. 여러 기록들을 통해 볼 때 옥소는 집안과 학문적 배경에서 기인한 禮·의리·염치 등의 가치관을 추구하여 절제된 삶을 사는 한편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추구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문벌가의 일원으로 상류층에 속해 있으면서도 신분적 특권에서 주어지는 부와 권력을 거부하고 인간 중심, 인간평등의 인식을 추구하였다. 그리하여 교유 관계 또한 의리에 따라 맺고 끊는 단호한 모습을 보였으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대로 일생을 살았다. 옥소에 대한 당대인들의 평가가 상반되고 옥소가 평생 주변인들의 손가락질에 시달렸던 것도 이러한 옥소의 성품에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32) 人之尊於我者 不以禮待我 徒以其款洽而喜之 則畢竟必受傷 必見重然後 乃無羞愧矣.
「산록내편1」.

2. 18세기 미시사의 중요 자료

1) 禮의 일상생활 적용 양상

「옥소산록」은 80년이 넘는 옥소의 삶과 견문이 기록되어 있어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중반까지의 조선 사회를 구석구석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옥소산록」을 통해 당시 사대부가의 일상, 민간 풍속, 역사적 사건의 이면, 세대, 정치·제도적 문제 등 당대 조선사회의 다양한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옥소가 당시의 역사적 사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 견문까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록하고자 한 것은 史家의 기록 의식과 상통하는 것으로, 기존의 정치적·철학적 거대 담론에서 조금씩 벗어나 미시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다양하고 자질구래한 정보가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는 인식을 갖게 된 시대적 흐름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³³⁾

「옥소산록」에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내용은 ‘禮’와 관련되는 것이다. 17세기 말 이후 18세기는 예학이 중시된 시대로 ‘禮의 적용’ 문제가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하기도 하였다. 1659년 효종이 죽었을 때 자의대비의 복상 문제로 서인과 남인 사이에 禮訟이 일어나 우암이 실각한 후 사약을 받기도 하였다. 옥소는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당시 사대부들의 교과서였던 『주자가례』가 실생활에 적용되는 양상, 禮를 실생활에 적용하고 해석하는 데에 있어 사대부들 간에 어떤 갈등이 발생했는지 등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관례나 사당 제사, 기제사, 장례 절차 등 일상생활 속의 禮의 실천 양상을 자기 집안의 경우나 전해 듣거나 목격한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는 18세기에 들어와 널리 전파된 『주자가례』의 적용 양상, 특히 노론 집안의 사례는 어떠했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 당시 사대부 집안에서는 祧遷과 冠禮가

33) 이러한 의식은 이의현의 산문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으로,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 지식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박은정, 앞의 논문, 229~231쪽 참조.

논란이 된 듯한데 옥소는 그 답을 遂菴과 尤庵의 가르침에서 찾고 있어, 우암에서 수암으로 이어지는 노론 학파의 禮에 관한 시각을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옥소산록」에는 또한 변화하는 세태를 염려하는 기사들이 자주 발견된다. 禮의 근본인 상하질서의 출발이 되는 호칭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문제, 서얼·첩·평민 등이 자신의 신분에 맞지 않는 복장을 하거나 禮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 어른 앞에서 행동을 조심하지 않는 당시 젊은이들의 태도에 대한 탄식이 곳곳에 서술되어 있다. 또한 허례허식이 성행하는 혼례 풍속과 사치의 상징인 加髻 비판, 사당 출입 시 실용적인 복장 착용 등이 서술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례는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와 더불어 禮의 근본인 상하질서는 유지하되 허례허식을 지양하고 실용성을 추구하는 옥소의 禮에 대한 인식을 보여 준다.

2) 사대부가의 일상

「옥소산록」에는 공식적인 역사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사대부가의 관혼상제와 延諡 풍속, 사대부가 여성들의 무속신앙, 사대부의 유람 풍속 등 당대 사대부의 삶과 사대부가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소소한 일화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옥소는 평생 유람을 즐긴 사람으로 방대한 양의 「유행록」을 따로 남길 정도로 여행을 많이 하였다. 「옥소산록」에도 여행 중의 에피소드와 견문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당대 사대부들의 유람 풍속을 확인할 수 있다. 사대부들은 여행 시 지방관으로 있는 친지와 친구로부터 숙소와 여행 경비, 연향 등을 제공받기도 하였으며, 지방관의 배려로 수군 조련과 같은 관아의 행사에도 참여하였다. 유람에 악사를 동반하는 것은 사대부들의 유람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문화인데, 옥소의 경우는 출발 때부터 악사를 동행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악사를 동원하여 풍류를 즐기는 모습이 관찰된다. 산속으로 유람을 할 경우 산중의 사찰에서 숙식을 하게 되는데, 승려들의 사대부 유람 시중,

승려와 사대부와의 갈등, 사찰의 유물과 불교 의례 등에 관한 기록도 발견된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사대부의 유람 문화의 실상을 확인하고 그 이면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다.

「옥소산록」에서 발견되는 재미있는 기사로 사대부가의 무속신앙을 자세하게 그려놓은 것을 들 수 있다. 물론 옥소는 무속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미신을 타파하는 논의를 펼치고 있지만, 여기에 소개된 일화를 통해 조선 후기 사대부가의 무속 신앙의 실태를 엿볼 수 있다.

이모께서는 15세에 윤씨 댁으로 시집을 갔는데, 그 집안은 해송 옹주 때부터 장군신을 받들었기에 錦袍·絳帶·繫笠·貝纓·弓劍·旌纛 등이 뜰 앞의 4칸짜리 누각 위에 가득하였다. 이모께서 대문으로 들어가 누각에 이르러서는 바로 모두 꺼내어 불태우고 巫婢는 멀리 쫓아 버렸다. 이 일은 후세 사람들이 알아야 하기에 이에 기록한다.³⁴⁾

위의 기록은 선조와 인빈 김씨의 소생인 해송 옹주 집안에서 오래 전부터 장군신을 받들며 巫具와 巫婢까지 갖추고서 굿을 했음을 말해 준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는 불교와 무속을 금지했으나 민간뿐만 아니라 사대부 집안에서도 여전히 무속이 숭상되고 있었던 당시의 모습을 보여 준다. 이 외에도 옥소가 팔에 병이 나자 무당을 불러 도깨비에 홀려 병이 난 것인지를 묻는 일화가 실려 있는데, 사대부가에서도 병의 치료 등을 이유로 여전히 무속을 가까이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향촌 士族의 역할과 지방관과의 관계

옥소는 한양 濟生洞에서 태어나서 젊은 시절 한양을 중심으로 생활했지만 중년 이후 지방으로 터전을 옮겨 살게 된다. 평생 관직에 진출하지 않고 중년 이후에는 향촌 사족의 신분으로 살게 되는데, 「옥소산록」에는

34) 從母十五歲 歸于尹氏 其家自海崇翁主時 奉將軍神 錦袍絳帶繫笠貝纓弓劍旌纛等物件 盈滿於庭前四間樓上 從母入門而當室 卽出焚之 遠逐其巫婢 此事後人不可不知 茲書之. 「산록내편1」.

향촌 사회에서의 향촌 사족의 역할과 지방관과의 관계 등이 나타나고 있어, 조선 후기 향촌 사족의 삶을 살펴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옥소는 화려한 문벌과 수암 권상하의 조카라는 배경에 힘입어 향촌 사회에서도 대접을 받고 지냈다. 옥소는 향촌의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위기가 닥쳤을 때는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³⁵⁾ 향촌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禮를 지도하는 역할을 하였다.³⁶⁾ 또한 옥소의 나이가 비교적 젊고 뒷배가 되어주던 부형이 살아있을 때는 집안에 喪事가 났을 때 지방관이 하인과 장례 물품을 제공해 주는 등의 혜택을 누리기도 했다. 그러나 노년에 이르러 뒷배가 되어 주었던 부형이 다 돌아가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처지에 이르자 지방관에게 푸대접을 받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지방관으로 새로 부임해 온 관리들은 지방 유지인 사족들을 방문하여 인사를 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옥소가 늙고 퇴락한 후에는 지방관으로 부임해 온 친구의 아들이나 손자조차도 인사하러 오지 않는 것을 탄식하는 기록이 자주 발견된다. 이 외에 지방 사족의 특권 중 하나였던 장례 시 군사와 장례 물품 부조도 받지 못하고, 환곡 요청도 번번이 거절당하는 등의 모욕을 겪는 모습이 그려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사례는 京鄕 사대부의 분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향촌 사족의 지위가 열락해지고, 전 시대와 달리 향촌 사회에서 지방관의 세력이 강화되어 가던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18세기 조선의 교육과 과거, 유생들의 생활

「옥소산록」에는 옥소의 修學 시절 일화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 조선 후기 교육제도와 과거 제도, 유생들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옥소는 서울에서 中學과 西學을 다녔고, 진사시 합격 후에는

35) 이인좌의 난 때 옥소는 정세를 살피면서 마을 사람들을 지휘하여 백성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36) 옥소는 國喪이 났을 때 지방관과 함께 곡을 하는 절차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의 질서 유지에 힘쓰는 등 지역 사회의 정신적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수암의 조카로서 禮의 실천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드러냈다.

성균관에서 학업을 계속하였다. 이후 백부를 따라 다니며 서원 출입도 많이 하였고, 27개 서원의 집강을 맡기도 하였다. 그 결과 「옥소산록」에는 중학, 성균관, 서원과 관련된 일화들이 다수 기록되어 있어 당시 교육 기관인 서원과 성균관의 운영 방식 및 뒷이야기, 유생들의 학업과 생활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옥소산록」에는 성균관의 황감제 실시 장면, 임금이 성균관에 하사한 물품을 장의가 독차지하여 유생들과 갈등을 빚는 일화, 집안 배경 등으로 서원의 장의를 선발하는 문제, 서원 출입의 절차와 예절 등 성균관과 서원의 소소한 일상과 사건들이 그려지고 있다. 또한 「옥소산록」에는 유생들의 활약상도 그려지고 있는데, 병자년(1696, 26세)에 옥소가 소두가 되어 辨誣 상소를 올릴 때 朴世采의 문인들이 상소 문구 수정을 요구하며 옥소 일당과 실랑이를 벌이는 일화가 생생하게 그려지기도 하였다. 기사환국 때 유생들이 인현왕후의 폐위를 반대하여 상소를 올린 사건은 상소 발의부터 疏廳 설치, 초고 작성, 초고 검토, 正書, 상소를 올렸지만 받아주지 않아 궐문 밖에서 농성하기까지의 과정이 마치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려졌다.

18세기의 많은 문헌들이 당시의 과거 부정에 관한 여러 가지 사례를 들려주지만 「옥소산록」에도 옥소가 직접 경험한 과거 부정 사례가 기록되어 있어 흥미를 끈다. 文才로 옥소와 우열을 다투었던 친구 李聖輝가 짓지도 않은 글로 과거에 합격하였다가 나중에 들통나서 벌을 받게 되자 옥소는 그와 절교하였으며, 자신 또한 32세에 監試에 응시하여 일등합격을 예상할 만큼 뛰어난 답안지를 작성하였지만 관계자들이 답안지를 훼손하여 탈락시키는 바람에 불합격하는 일을 당하기도 하였다.

5) 역사적 사건의 이면

조선 사회의 일상과 이면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일화 외에 「옥소산록」을 통해 역사적 사건의 객관적 기록 이면의 현장에 있었던 이들의 목격담이라든가 해당 사건에 대한 당대의 여론, 사건 당시의 현장 등을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다. 「옥소산록」에 기록된 유명한 사건으로는 이인좌의 난과 우암이 사약을 받은 사건, 兪晦之 사건, 인현왕후 폐위 사건 등이 있다.

옥소가 제천에 머물고 있을 당시 이인좌의 난이 일어났는데, 「옥소산록」에는 이인좌 난의 추이, 당시 지역 상황과 백성들의 분위기, 지방관들의 대응, 옥소의 역할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巨視史로서의 이인좌의 난이 아니라 이인좌의 난이 일어난 당시의 微視史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우암이 제주도로 유배되었다가 다시 서울로 압송되던 중에 정읍에서 사약을 받고 운명하던 순간과 장례 과정에 대한 설명은 공식적 역사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그날’의 현장을 전해 준다. 이러한 기록은 공식적 역사 기록의 틈을 채워주는 역할을 할 것이며, 미처 알려지지 않은 사건에 대한 사료의 기능을 할 것이다.

옥소 시대 또 하나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兪晦之 사건’이었다. 조선시대에 사대부는 임의로 이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면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였다. 그런데 유희지의 아버지 유정기가 악행을 이유로 계모 申氏를 쫓아내고 의금부에 잡혀가게 되자 사대부들 사이에서 유정기를 죽여야 한다, 유희지가 의금부에 가서 대신 죄를 빌어야 한다는 등 논란이 들끓었으며, 유희지가 계모의 상에 상복을 입지 않자 비난이 쇄도하였다. 이에 대해 옥소는 당시의 여론과는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이 일화는 유희지 사건에 대한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사대부들의 가치관의 대립 등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옥소산록」에는 기사환국 때 인현왕후의 폐위를 반대하여 상소를 올리던 날의 전모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전하는데, 상소를 작성하여 올렸다가 거절당하기까지의 그 긴박한 과정을 서술하는 와중에 정서 중인 상소를 朴泰遠이 탈취하여 도망가자 추격전을 벌여 다시 빼앗아 온 사건, 成揆憲이라는 유생이 소청에 오려다가 아내가 승례문 밖까지 따라와 옷자락을 붙잡고 만류하는 바람에 참석하지 못한 일화까지 자세히 묘사하여 그날의 숨은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준다. 이는 正史 뒷면의 개인의 삶까지 다룸으로써 사람살이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이야기 문학의 재

미도 선사한다.

6) 당대의 사회적·정치적 문제

옥소는 현실정치에 관심이 있었다. 젊은 시절에는 현실정치에 너무 관심을 갖는다고 부형의 걱정을 듣기도 하였다. 그러나 신임사화로 노론이 무너지고 백부, 동생, 외삼촌 등이 참변을 당하는 일을 겪고, 아들이 옥새 위조로 죽음을 당하는 등의 불행을 겪으면서 옥소는 정계 진출에 대한 뜻을 완전히 버리고 문학 창작과 유람을 즐기며 처사로서의 삶을 만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정치 현안에 대해 여전히 관심을 갖고 정치와 제도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옥소의 정치관도 엿볼 수 있지만 당대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옥소는 당대 조선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당쟁과 인재 등용, 국방을 들었다.

옥소는 수암 권상하의 조카로 노론의 핵심부에 속해 있었던 인물이다. 비록 자신은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지만 당대 정치계의 중심에서 정치적 갈등 양상을 모두 목격하였다. 「옥소산록」에는 18세기 정치사의 뒷면, 즉 일상에서 벌어지는 노소 갈등이 학문적 대립과 교유 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그려지고 있다. 하지만 「옥소산록」에는 당파 간의 대립만 나타나지 않고, 당색을 떠나 노소 관계를 파악하려는 옥소의 유연한 태도가 포착된다. 이러한 기록은 노소 관계를 적대적인 관계로만 파악하는 현대의 시각에 변화를 유도할 것이며, 정치적 대립 이면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노론과 소론의 교유 양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옥소는 노론 문벌가에 속해 있었지만 당파로 인한 정치계의 분열을 비판하였으며, 당쟁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재 등용의 방법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사람을 그 자체로 판단하지 않고 당색으로 판단하고, 문벌가에서만 인재를 등용하는 것을 비판하였으며, 중인이나 평민층에서도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펼쳤다. 또한 北關에도 뛰어난 인물이 있음을 주장하여 문벌이나 지역을 떠나 뛰어난 인재

가 있다면 고루 등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러한 의식은 인재 등용에만 한정되지 않고, 예술가나 기술자를 평가하는 데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옥소는 그림이나 음악, 민간예술 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신분을 따지지 않고 재능 자체를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칭찬하였다.

옥소는 당시의 국방 정책에도 비판을 가하여 국방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정책을 제안하였다. 함경도에서는 내수사 노비를 이용해 적을 방비할 방법을 제시하고, 무주 赤裳山城, 문경 主屹城, 단양 獨樂城 등에는 지형을 이용하여 성을 수축하여 위급한 상황에 대비할 것을 주장하였다. 우리나라 국방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산성을 수축하는 것인데 태평스러운 문관이나 놀기 바쁜 무관들은 이런 데에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다고 탄식하였다.

또한 옥소는 서원 철폐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영조 때에 붕당을 약화하기 위해 서원 정리를 단행했는데, 개인적으로 건립한 서원을 정리하라는 명이 내려져 178개소의 서원이 철폐되었다. 이에 옥소는 서원 철폐를 비판하였으며, 동생 權瑩이 서원 철폐를 반대하다가 제주도에 유배된 것을 칭찬하기도 하였다. 옥소는 당시 세금, 공물, 왕족의 제수 비용 등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禁松, 소 도축, 추노, 擔軍³⁷⁾, 환곡에 대한 심한 제재 등 당대 사회 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비판했으며, 접대, 모임, 혼인 등과 관련된 폐단과 반대의 사례를 제시하여 당대 사대부 층의 허례의식 등을 비판하였다.

3. 옥소와 18세기 조선의 학문적 관심

「옥소산록」은 대체로 자신이 보고 듣거나 경험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

37) 擔軍: 짐을 운반하는 군정인 擔部軍의 준말로, 상여를 메거나 산소를 조성하는 일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으나 어떤 주제나 대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학술적으로 논의한 것들도 있어 관심을 끈다. 당시 한자음이 잘못 읽힌 채 정착되어 가는 과정을 비판한 韻字學에 대한 글과 당시에 널리 통용되는 사물의 異稱과 호칭을 기록한 글 등은 국어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한문 해석에 관한 異見을 설파한 글들도 있어 문장론의 측면에서 살펴볼 만하다.

「옥소산록」에는 또 자신과 교유한 많은 인물들과의 일화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의 대표적인 문벌의 내력과 인물, 조부·백부·부·계부·자신의 친구 등 총 319명의 명단을 따로 정리한 자료가 실려 있는데 이는 18세기 사대부들의 인맥과 혼맥, 교유 관계 등 사대부들의 사회관계망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옥소산록」에는 비록 깊이 있는 논의를 펼치지는 않았지만, 성리학의 주요 개념에 대한 견해나 역사에 대한 해석, 문학과 음악·미술에 대한 견해, 민간 풍속에 대한 설명, 사물의 이치, 풍수에 대한 지식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옥소가 자신의 생각을 펼친 글들이 수록되어 전한다. 옥소는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면서 당대의 주류적 견해와 차이가 있는 부분은 비교하여 서술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 옥소의 사상, 나아가 18세기 조선 지식인들의 관심사와 학문적 경향, 당시의 논쟁적 주제 등을 추론할 수 있다.

V. 결론

옥소는 『옥소고』라는 60여 책에 달하는 방대한 필사본 문집을 남겼다. 『옥소고』에는 「시」와 「유행록」, 「몽기」 등 재미있고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실려 있지만, 옥소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조선 후기 사회를 직접적으로 이해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자료는 「옥소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옥소산록」은 일기의 성격을 띠는 책으로, 교훈·자기성찰·학술적 견해 등 수상록의 성격을 띠는 글과 어린 시절의 추억·지나간 삶에 대한 회한·노년의 외로움 등 회고록 성격의 글이 섞여 있다. 「옥소산록」에는 주체와 문체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써 내려간 416개 항목의 기사가 수록되어 있는데, 서사체와 논설체가 가장 두드러진다. 서사체는 주로 자신이 경험한 역사적·개인적 사건을 기록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논설체는 정치·사회·철학 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었다.

「옥소산록」은 ‘정직성’과 ‘정확성’을 추구하는 서술태도를 보여 주었으며, 자탄적 표현과 어조를 지닌 글들이 빈번하게 출현한다. ‘정직성’과 ‘정확성’을 추구하는 서술태도는 옥소의 솔직한 성품과 관련이 있으며, 史家와 같은 태도를 유지하면서 전범으로 삼은 사마천의 『사기』의 문체를 본받고자 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탄적인 글들이 많은 것은 「옥소산록」이 파란만장한 삶의 결과물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을 듯하다. 옥소는 신분의 몰락, 가정적 불행, 세상 사람들의 비난 등을 겪으며 평생 힘든 삶을 살았다. 평생 부정당하고, 상처받는 가운데 자신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는 방편이 된 것이 유람과 글쓰기였으며, 「산록」은 이러한 자기 치유의 글쓰기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옥소산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옥소의 삶을 총체적으로 실제에 가깝게 구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옥소산록」을 통해 본 옥소는 세속적 욕망보다 탈속적 삶을 추구하였으며, 솔직하고 강직한 성격으로 인해 세상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인물이었다. 평생 유람과 문학을 즐기며 고고한 선비의 면모를 견지하였지만 ‘인간존중’ 사상을 지닌 따스하고 포용력 있는 면모를 보이기도 하였다.

옥소라는 작가를 전 방위로 깊이 있게 탐색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옥소산록」은 당시 조선 사회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옥소의 기록벽 덕분에 「옥소산록」을 통해 우리는 역사적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사대부가의 소소한 일상, 민간의 풍속, 당시의 정치·사회적 이슈까지 조선 후기 미시사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게

되었다. 더구나 이 기록이 역사 기록물처럼 객관적 사실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때 그곳의 사람들과 그들의 목소리까지 담아내고 있어 당시 사회의 복합적인 모습을 재현하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당대 사람살이의 세세한 면을 엿볼 수 있는 재미를 누릴 수 있다.

간략하긴 하나 옥소가 성리학·운자학·계보학·예술 등에 대한 학술적 견해를 남기고 있어 그의 사상과 학문적 관심을 파악하는 데도 「옥소산록」이 도움을 준다. 옥소는 노론가의 중심에 속해 있었던 인물인 만큼 그의 학술적 관심과 활동은 18세기 노론계 지식인들의 학문적 경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옥소의 교유 관계가 노론계 인사들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계층과 분야에 걸쳐 있었던 만큼 18세기 조선의 지식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도 「옥소산록」이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옥소에 관한 연구는 국문시가 연구에서 출발하여 한문학으로 확장되고 이후 사상사, 음악, 미술, 복식, 풍수 등에 대한 연구가 출현했지만 여전히 문학 연구가 주를 이루며 더 이상 연구 범위가 확장되지 못하고 정체된 감이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연구 주제를 확장할 새로운 자료가 소개되지 않은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옥소산록」은 새로운 연구 주제 발굴에 도움이 될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옥소산록」을 꼼꼼히 읽어내는 것만으로도 지금껏 논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연구 주제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며, 옥소와 관련된 기왕의 논의를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옥소산록」은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풍성한 결과가 쏟아져 나올 수 있는 특별한 재료라고 할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옥소산록」의 가치는 크다고 할 것이다.

※ 이 논문은 2021년 11월 6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1년 11월 17일부터 12월 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1년 12월 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권섭, 『玉所稿1-17』(필사본 영인), 도서출판 다운샘, 2007.
- 권섭, 『玉所集』(석인본).
- 권섭, 『옥소산록』, 이창화·장정수 옮김, 도서출판 다운샘, 근간.
- 조선왕조실록 sillok.history.go.kr
- 신경숙 외, 『18세기 예술·사회사와 옥소 권섭』, 도서출판 다운샘, 2007.
- 신경숙 외, 『옥소 권섭과 18세기 조선 문화』, 도서출판 다운샘, 2009.
- 심경호, 『한문산문의 미학』,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8.
- 김도련, 「사마천 『사기』의 구성과 서술 기법에 대하여」, 『中國學 論叢』 13, 국민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1997.
- 김성환, 「司馬遷의 『史記』 研究(2)-『史記』의 文體-」, 『論文集』 22, 全州大學校, 1993.
- 박은정, 「조선후기 지식 패러다임의 변화와 도곡 이의현-記錄癖과 기록 정신을 중심으로-」, 『溫知論叢』 30, 온지학회, 2012
- 송혁기, 「18세기 초 散文理論의 전개 양상 일고: 이의현, 신유한, 조구명의 대비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31, 한국한문학회, 2003.
- 심경호, 「조선시대 문집 편찬의 역사적 특징과 문집 체제」, 『한국문화』 7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5.
- 유강하, 「치유적 관점에서 본 사마천(司馬遷)의 글쓰기 : 「태사공자서(太史公自序)」와 「보임안서(報任安書)」를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28, 한국문학치료학회, 2013.
- 정우락, 「옥소 권섭의 세계인식과 영남관」, 『옥소 권섭의 세계 인식과 문경』,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21. 10. 22.
- 조성산, 「옥소 권섭의 학풍과 현실관」, 신경숙 외, 『옥소 권섭과 18세기 조선 문화』, 도서출판 다운샘, 2009.

Abstract

Characteristics and material value of 「*Oksosanrok* (玉所散錄)」

Chang, Chung-soo

Okso compiled 『*Sanrok*(散錄)』, which meticulously recorded reflections on his life, lifelong experiences, artistic activities, and political and historical events. The first purpose of *Okso*'s creation of 『*Sanrok*(散錄)』 was to record his life as it is and to be taught by others. The next purpose was to convey and emulate the family rules to the descendants, and to properly know what their ancestors were like without unconditional beautification or disparaging. 『*Sanrok*』 consists of 「*Sanroknaepyeon*」 and 「*Sanrokoepyeon*」, and contains a total of 416 articles. 「*Sanroknaepyeon*」 has a strong character of “Essays(隨想錄)”, which collected and edited the fragmentary thoughts about the subject of the narrative, lessons that can be taught to future generations, and articles on self-reflection. While 「*Sanrokoepyeon*」 stands out as “Memoirs(回顧錄)” that candidly recorded childhood memories, recollections about his life, and the loneliness of old age. The characteristics of 「*Oksosanrok*(玉所散錄)」 included the emergence of various styles such as narrative, editorial, and literary sketch, a narrative attitude aimed at ‘honesty’ and ‘accuracy’, and ‘writing for healing’. 「*Oksosanrok*(玉所散錄)」 provides information that can realize *Okso*'s life in a comprehensive and detailed way, and becomes an important material of microhistory that can look into every corner of

Joseon society in the 18th century. And also 「Oksosanrok(玉所散錄)」 contains content from various fields, it is valuable in that it can expand the field of Okso research, which is still in a stagnant state.

keywords :

「*Oksosanrok* (玉所散錄)」, Essays(隨想錄), Memoirs (回顧錄), narrative, editorial, *Lee Euhyun* (李宜顯), *Hyangchon-Sajok* (鄉村土族)

